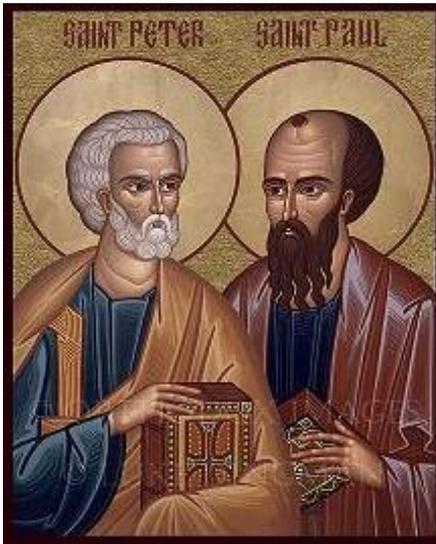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9 일 기도

(2018 년 6 월 20 일 - 28 일)



주제: 고통 받는 인류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교회의 위대 한 목자이시며 삶과 사목사명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을 준비합니다. 두 사도는 서로의 다양성 안에서 새롭고 참된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실현하셨습니다. 이 대축일을 준비하며 삶과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류 전체를 강타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위대한 사도이며 목자이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위협받는 생활, 다양한 현실, 사람들, 형제들의 필요, 사명의 필요를 인식하면서, 주변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주보성인인 두 분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에 아직도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 죽이는 것을 멈추고 삶의 증진을 시작하는데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 감옥에서 벗어나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 1 일 6 월 20 일 토요일

주제: 온유함의 눈길

들어가는 말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을 준비하는 구일 기도 첫째 날에는 '온유한 눈길'에 대해 숙고 해보고자 합니다. 아픔과 쓰라림과 오해가 가득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온유한 눈길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일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온유하시고 선하신 하느님, 당신의 이름과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은 저희가 온유함의 자세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특별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저희가 당신의 온유함과 사랑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필리 1,3-11.

교회의 가르침

‘사랑 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근래에 받은 가장 강한 메시지이다. (...) 온유함은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온유함은 하느님의 부성적인 모습과 함께 모성적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하느님은 사람과 사랑에 빠지셨고, 어머니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이사 49,15 참조)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연민을 지니시며, 우리 때문에 감동하신다. 온유함은 호의적인 말이며,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해독제이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며(1 요한 4,18) 신뢰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받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 온유함은 감성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극복하고, 인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자기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온유함을 통해 사랑이 바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온유함의 신학에 관한 심포지엄 참석자들과 나눈 교황 프란치스코의 담화, 2018. 09. 13)

알베리오네 말씀

표양과 기도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행동으로, 즉 항상 호의적인 태도와 품위 있는 태도로, 그러나 동시에 어느 정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태도로 공동체에 기쁨의 빛을 가져가십시오. 걱정은 다른 날로 미루십시오. 지금 당신은 식탁에 있고, 지금은 레크레이션 시간이고, 지금 이 식탁에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미가 부르고, 좋은 대화를 나눕니다. (...) 기쁨을, 하늘에서 복된 이들이 지니는 그 기쁨의 빛을 어디든지 가져 가십시오. 여러분은 기쁨과 선의 창조자들이고 기쁨과 선의 사도들입니다. (AAP 1960, 226-227)

- 길이신 예수님 -

숙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봅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숙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를 교회의 으뜸가는 목자로 삼으시고, 그들의 거룩한 직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거룩한 사도들이여, 저에게 회개의 은혜와 성소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전구해 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와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코론치나 1 번)

성가

제 2 일-6 월 21 일

주제: 자비의 눈길

들어가는 말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시편 89,2) 구일 기도 둘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자비로운 눈길이 더 살아나도록 합시다. 자비는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느님과 사람을 일치시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희망에 우리 마음을 개방시키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일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묵상 후렴구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힘인 당신의 자비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온 우주에 퍼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선함과 자비의 몸짓이 저희 안에서 되살아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영원히 찬미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던 그 자비로운 사랑과 그 마음이 저희 안에 되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하느님의 말씀: 1 티모 1,12-17.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로 우리에게 전수된 그대로 자비의 진리 전부를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교회의 일상생활을 보면 성경에 표현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진리가 성전례(聖典禮)의 여러 독서를 통해서 영구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갖는 올바른 신앙감각으로 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에서 오는 다채로운 표현으로 이 진리가 나타납니다. 물론 신심의 표현들을 열거하거나 간추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생생한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 까닭입니다. (...)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광범위한 신앙 체험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와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 신비 전체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교회의 산 신앙과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를 뵈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당신 자비의 거룩함 속에 계시는 '아버지를 뵈는 길'에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에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비의 관리자요 분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체성사와 고해 또는 화해의 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는 일이 크나큰 비중을 갖습니다. (요한 바오로 2 세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 13 항)

알베리오네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얇에 있어서 완전한 빠스또렐레가 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와 수도생활, 그리고 희생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사도직은 완전한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구일기도 동안 '우리는 정말 좋은 목자인가?'에 대해 성찰해봅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얇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기도와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삶의 봉헌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 이 두 위대한 사도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지닌 성덕! 성베드로와 성바오로의 삶에 대해 언제나 좀 더 알아가십시오. 사도직은 피상적인 것이거나 우리가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동시에 내적 성화, 기도와 고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AAP 1967, 445-447)

- 길이신 예수님 -

숙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봅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숙고 나눔 또는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케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입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름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성가

제 3 일- 6 월 22 일 월요일

주제: 연민의 눈길

들어가는 말

구일 기도 셋째 날에는 연민의 눈길에 대해 살펴봅시다. “연민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게 해준다. 연민은 마음의 안경 같은 것이다. (...) 연민은 하느님의 언어이기도 하다. 성경을 보면, 연민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탈출 3,7)고 말씀하신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파견하신 것도 하느님의 연민이다. 우리의 하느님께서서는 연민의 하느님이시고, 말하자면, 연민은 하느님의 약함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힘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성자를 파견하도록 그분을 움직이게 한 것도 바로 연민이기 때문이다.”

(교황 프란치스코, 산타 마르타의 집 미사 강론, 2019. 09. 17)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일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오 주님, 연민의 하느님, 저희 안에 당신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축일을 거행하면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증언에 대해 감사하게 하소서. 전해주신 삶의 방식을 성실하게 경청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주소서.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앞에서 저희가 연민의 마음과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가장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에 의해 저희가 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필리 2,25-29.

교회의 가르침(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증언)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의 빈 광장에 화려한 걸치레 없이, 누군가의 예고와는 달리 기적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작별인사 없이 떠나간 사람들에게 대한 아픔으로’ 고통스럽게 울면서, 자신 위에 로마와 세상이 겪는 고난의 표징들을 지고 간다. 보여주기 위한 전례를 거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 부르짖는 온 민족들의 소리를 하느님께서 들으시도록 전 세계가 형제애와 연대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초대했다. 생명을 위한 투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인류 전체가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써, 축성된 성체가 거기에 현시 되었다. 교황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신의 얼굴 위에 가져 간다.

(Editoriale della Rivista de Liturgia maio/junho 2020, S. Paulo Brasil)

알베리오네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의 빛을 반사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서원한 것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힘과 능력과 온 삶을 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수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생명의 선물을 요구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매일 매일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주십시오. (PRP VIII, 1957, P. 185).

- 길이신 예수님 -

속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보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속고 나눔 또는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시편 121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

내 도움은 주님에게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네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신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네 오른쪽에 계시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네 생명을 지키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가

제 4 일 6 월 23 일 화요일

주제: 연대와 환대의 눈길

들어가는 말

히브리서 저자는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라고 썼고, 베드로 사도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1 베드 4,9)."라고 하였다. 이 9 일 기도의 제 4 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연대와 환대의 눈길을 갖도록 초대 받았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며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저희 모두를 사랑으로 동반하시는 사랑의 하느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집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저희 안에 생명과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 일하도록 촉구하는 선교의 정신을 강화시켜 주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18,1-4.24-27.

교회의 가르침

사도 행전은 지칠 줄 모르는 복음 전파자 바오로는 아테네에 머문 후 세상에 복음을 빨리 전하려고 서둘렀다고 말합니다. 그의 선교 여행의 새로운 단계는 코린토입니다. [...] 바오로는 아퀼라와 프리실라 부부에게서 환대를 받습니다. [...]

이 부부는 하느님께 대한 충만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신들처럼 외국인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감수성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게 하였고 (참조, 로마 12,13; 히브 13,2), 사도 바오로를 환영하기 위해 집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복음 전파자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 오는 "믿는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능력(로마 1,16)."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집은 마음을 활기치게 하는 "살아있는"말씀(히브 4,12)의 향기로 채우게 됩니다. 코린토에있는 아퀼라와 프리실라의 집은 사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도 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바오로는 " 집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1 코린 16,19)"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장소인 "가정 교회", " domus ecclesiae "가 됩니다. [...]

오늘날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리스도교인에게 자유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모여 숨어서 기도하고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오늘날에도 성체를 위한 성전이 되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1년 반을 지낸 후에 멈춘 아퀼라와 프리실라를 놔두고 그 도시를 떠나 에페소에 머뭅니다. 그 집도 교리 교육의 장소가 됩니다(참조, 사도 18,26).

마지막으로 두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 바오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 편지에서 훌륭하다고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두 부부에 관해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프리스카와 아퀼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로마 16,4)."라고 썼습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얼마나 많은 가족이 박해 당하는 사람을 감추기 위해 목숨을 거는가! 이것은 가혹한 시기일수록 집 안으로 받아들인 첫 번째 예입니다. [...] 우리는 아퀼라와 프리스카 이 두 성인에게서 우리의 가정이 그들의 가정과 같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정 교회를 이루어 신앙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일반알현 2019년 11월 13일)

알베리오네의 말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가정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애덕을 반영한 것입니다 (PrP IV, 109 쪽).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빵,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난민과 망명자들을 위한 고향, 노숙자들을 위한 환대의 집, 아직도 자유를 빼앗긴 이들을 위한 자유 의무, 육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눈먼 이들에게 친밀한 빛의 기쁨 그리고 영혼들의 일치하는 진리와 선과 교회의 기쁨과 자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기도하십시오! (PrP VI, 178 쪽)

- 길이신 예수님 -

속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봅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속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선한목자예수님, 당신 대리자들을 통하여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성 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에게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길인 순명의 정신을 얻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에게 드리는 코론치나 4 번)

성가

제 5 일 6 월 24 일 수요일

주제: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눈길

들어가는 말

끊임 없이 선교하고 있는 교회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복음화와 인간 지위향상이 가장 발전의 가장 약한 현실을 향해 도움의 눈길을 돌리라고 초대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회 사업과 교육 사업의 대부분이 선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위해 모금을 하도록 공동체를 독려한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오 하느님, 믿음의 기초를 저희에게 전하고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증거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사도들의 중재로 복음의 충실한 증인이 되는 은총을 당신께 청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용기 있는 선교사 성소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1 코린 16,1-6

교회의 가르침

선교 사업에는 경제적 필요성도 크다. 그것은 최소 한도의 구조를 갖춘 교회를 설립하는데 뿐 아니고, 자선사업, 교육사업, 인간 향상 사업 등,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의 넓은 분야의 활동을 지탱하기 위해서이다. 선교지역교회는 받은 것을 준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의 자녀들이 희사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나는 여기서 선교 사업에 희생적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그들의 희생과 참여는 교회를 건설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물질적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기여로 하는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 tsry 는 기여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선포와 가난한 이를 위한 애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생명과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너그럽게 준다는 것은 항상 신앙의 빛과 신앙의 충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받기보다 줌으로써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선교사명 81)

알베리오네 신부님 말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수도 공동체의 자매들입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희생하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적응하며 자매들의 필요에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모든 행위는 애덕의 실천입니다.(원천으로 62 쪽)

생활규칙에서

우리는 사목적 애덕 안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교회의 목자이며 우리 사도직의 모델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에게 청한다(생활규칙 35).

- 길이신 예수님 -

속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보여줍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속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세례를 통해 저희가 교회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당신 성령의 은사로 용기 있고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과 하나되어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019년 10월, 특별 선교사의 달을 위한기도).

성가

제 6 일- 6 월 25 일 목요일

주제: 돌보고 자유롭게 하는 시선

들어가는 말

우리는 9 일기도의 제 6 일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선을 갖도록 초대되었다. 베드로의 존재와 사랑의 시선은 그가 지나가는 곳에 변화를 일으킨다. 진정한 선교사이자 제자로서 그는 정체되고, 약화되고, 소외되고, 박해 받는 공동체를 소생시키고, 강화시키며, 활력을 줍니다. 경청하고, 개입하고, 보호하고, 변호하고, 구속하고, 생명을 구하는 시선이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오 하느님, 당신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순교 대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명을 기꺼이 수행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의 시선이 항상 저희의 도움과 부드러움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저희는 이 사도들의 모범을 통해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증거 할 용기를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9,32-42.

교회의 가르침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충실하고, 친밀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전투 후의 야전 병원으로 봅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콜레스테롤과 당뇨가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은 쓸 데 없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남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상처를 치료하십시오. 교회는 때때로 작은 것들로, 작은 규칙들로 닫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첫 번째 복음선표입니다. [...] 사람들은 동반 받아야 하며, 상처는 치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요 여성목자인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며 일으켜 세워 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신의 이웃을 동반하면서 자비롭게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넘어서십니다. [...]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어둔 밤을 걸으며, 대화 할 수

있고, 그들의 어둔 밤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있는 사람들이어야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p. 안토니오 스파다로 인터뷰, 성 마르타의 집, 2013 년 8 월 19 일)

알베리오네의 말씀

빠스또렐레는 예수님의 교리를 꿰뚫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으며, 예수님과 하나되어 살아가며, 전 존재가 그분의 것이 되는 영혼입니다. 본당 안에서 정착하여, 영혼들을 양자 결연으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생명과 죽음과 영원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빠스또렐레는 사도직에서 영혼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며, 악을 없애고 선을 세우기 위하여 본당 사제와 함께 협력합니다. 그들은 본당 안에서 자매, 어머니, 스승, 교리 교사, 모든 고통의 위로자, 지속적이고 유익한 빛 줄기와 태양광채가 될 것입니다.

(선한목자예수수녀회 기록 보관소, 문서 번호 271)

-길이신 예수님-

숙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받습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숙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성바오로 사도에게 드리는 기도

당신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가르치신 거룩한 사도님, 당신의 자녀요 제자인 저희 위에 어지신 눈을 드리주소서.

저희는 천상 스승과 사도의 모후 마리아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에서만 모든 것을 기대하나이다. 이방인의 박사여,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 희망으로 구원되며, 오직 사랑만이 저희를 다스리게 하소서. 간택된 그릇이여, 주님의 은총이 저희 안에 헛되지 않도록 온순히 응하게 하소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언제나 당신을 좀 더 잘 알고 사랑하며 본받게 하소서. 거룩한 사도들을 많이 일으키시어, 세상에 참사랑의 뜨거운 바람이 일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과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알고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은 저희가 저희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시오니, 스승이요 아버지인 성 바오로의 능한 (전구의) 기도를 들으시어, 당신의 자비로 저희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소서. 아멘.

성가

제 7 일 6 월 26 일 금요일

주제: 주님의 백성을 위한 돌봄과 열정을 바라보기

들어가는 말

오늘 9 일 기도의 주제는 지치고, 존엄한 삶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되며, 목자들의 무관심으로 아파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열정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시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사도들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의 활동을 돌봄에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아름답고 험난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들로부터 배우도록 합시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거룩한 사도들이 생명과 복음을 위한 돌봄과 열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당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사도들의 중재를 통하여, 저희 또한 복음적 기준으로 헌신하면서 저희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고,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사도 20,28-35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한다. 특히 믿음과 사랑의 생활로 그리스도께 대한 생생한 증거를 널리 전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친다(히브 13,15 참조). [...]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이 백성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 나가, 처음에 인간 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흩어진 당신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신 하느님 뜻의 계획을(요한 11,52 참조) 성취시켜야 한다. [...] 따라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의 하느님 백성이 있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지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과 친교를 이룬다.(교회헌장, 12-13)

알베리오네의 말씀

여러분의 사도직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도직은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성인이 되기 위한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은 항상 발전하기 위하여 더 배우고 정진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사도직을 위하여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원천으로 27-28 쪽)

생활규칙

선교 사명에 임함에 있어 우리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우리는 보편교회의 목자인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충실하면서 무상으로 기쁘게 하느님의 양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배우며, 이방인의 사도인 바오로로부터 가장 적당한 사목 형태를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용기를 배운다.(생활규칙 9 조)

- 길이신 예수님 -

속고와 묵상

- ✓ 본문과 기도에서 느끼는 호소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 ✓ 우리에게 요청하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속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 영광스러운 순교로, 거룩한 사도들의 삶을 빛내신 당신께 찬미드립니다. 저희의 수호자들이여, 착한 사도들에게 마련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좋은 표양, 고통, 사목활동의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님,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에게, 코린치나 5 번)

성가

제 8 일 6 월 27 일 토요일

주제: 다양성 안에서 친교의 시선 갖기

들어가는 말

오늘의 주제는, 오늘 세상이 제공하는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권고하는 것처럼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한다. 불안함이 우리를 동반 하더라도 희망을 갖고 확실하게 걸어가자. 사명 안에서 겪는 도전들은 대화, 개방성과 임무를 위한 기회가 된다. 베드로와 바오로의 열렬한 선교정신이 밖을 향해 나가는 교회의 선교정신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늘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게 하자.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오 하느님, 인류가 다양성 안에서 친교를 살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 안에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를 일으키셨으니, 그들의 전구로 항상 다양성 안에서 친교의 시선을 갖도록 식별과 지혜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갈라 2,6-10.

교회의 가르침

잘 이해하면, 문화적 다양성은 교회의 일치에 위협하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는 성삼의 완전한 친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분은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조화를 건설하신다. 성령 그 자신이 조화이시며, 성부와 성자 사이의 사랑의 유대가 되신다. 그분은 다양한 은사들을 일으키시고 동시에 일치를 건설하는데, 결코 일률적이지 않고 이끌리는 다양한 형태의 조화로움이다. 복음화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수많은 부를 즐겁게 인식한다(복음의 기쁨 117).

목자들과 일치 안에서, 남녀 수도자들은, 그들의 존재와 친교 안에서 생활한 형제적 삶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 특히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하는 장이 되도록 불리웠다(아파레시다 문헌 217 번).

알베리오네의 말씀

우리 카리스마의 근본적인 특징은 교회의 목자들과 함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목적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생활규칙 5)

형제적 일치와 은총은 우리가 파견된 백성들을 향해 우리를 개방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하고 기쁘고 가시적인 형제애를 제공하며, 한결같은 정열과 시간을 바치면서 모든 이들을 맞아들이고 환대를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생활규칙 25)

- 길이신 예수님 -

숙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받습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숙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주님의 기도

성가

제 9 일 6 월 28 일 일요일

주제: 고통 앞에서 희망의 시선 갖기

들어가는 말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9 일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고통 받는 인류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초대 되었는데, 이 초대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면서, 충만한 생명의 하느님 안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삶의 기억 찾기

기도 중에 기억하고 하느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현실과 교회의 현실과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봉헌한다.

성가

기도합시다

생명과 평화의 힘이신 하느님, 당신은 복음 선포가 전 세계에 도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에게 경청과 생명에 이르는 수련을 하는데 충실하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당신 성령의 힘으로, 저희가 많은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희망의 표징과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진리이신 예수님 -

하느님의 말씀: 1 베드 3,13-17

교회의 가르침

“안식일이 지나고”(마태오 복음 28,1), 여자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눈 앞에 고통의 드라마,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예상치 못한 비극의 드라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 여자들은 자신들이 무력해 지도록 놓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후회의 암울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으로 갇혀있거나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특별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비의 불꽃을 밝힙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마태오 복음 28, 5-6). 그들은 무덤 앞에서 있을 때조차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모든 희망을 주시는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오 복음 28, 10).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즉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바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밤 우리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를 획득합니다. 즉, 희망하는 권리.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고 살아 있는 희망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등을 토닥거려주는 위로나 공허한 미소로 이야기 되는 공허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나라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우리 인정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격려의 말들이 일어 나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될거야”라고 되풀이하며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가장 대범한 희망조차도 흩어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망은 다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무덤에서조차 생명을 가져오시므로 모든 것을 선으로 작용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마음 속에 희망을 매장시켜 버렸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더 위대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강해지십시오. 하느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울부짖음을 멈추시다, 더 이상 전쟁은 안됩니다! 우리가 무기의 생산과 거래를 멈추게 하소서, 우리는 총이 아니라 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낙태와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것을 그만둬시다.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기본적인 필수품들도 갖지 못한 빈 손들을 채우는데 열리도록 하여 주소서.(2020.04.1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부활성야 미사 강론)

알베리오네의 말씀

희망은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신 초자연적인 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과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경험합니다. 모호한 확률이 아닌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달콤한 위로로, 그리고 삶을 위한 가장 강한 지주로 삼아야 하며, 대신덕이며 초자연적인 이 덕을 집요하게 청해야 합니다.(DFst p.71)

삶의 오랜 경험과 고통의 평온한 수용이 사목적 사명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위하여 소진한 삶의 부유함을 수도회와 하느님의 백성에게 가져다주는 것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적 힘이 줄어드는 것을 신뢰와 희망으로 받아들인다.(생활규칙 89)

- 길이신 예수님 -

속고와 묵상

- ✓ 우리는 읽고 기도한 본문에서 어떤 부름을 받고, 어떤 빛을 받습니까?
- ✓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청합니까?

- 생명이신 예수님 -

속고 나눔 혹은 자유기도

기도합시다: 시편 71,1-8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가

구일 기도를 준비해 주신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 관구 론드리나 공동체의 수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20 년 6 월, 로마 총원



2020 년 6 월 선한목자예수수녀회 로마 총원